



제3차 로잔대회 케이프타운 서약의 특징과 의의¹⁾

최형근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1. 들어가는 글

20세기 복음주의 선교운동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이며 분기점인 1974년 로잔대회는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을 통해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규정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양자를 묶어주는 계약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 의미는, 로잔언약을 통해 복음주의 진영이 세계선교를 위해 단순히 어떤 것을 선언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세계복음화라는 과업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행동에의 요청을 담고 있다.²⁾

1) 본 논문은 2011년 2월 IVF에서 주최한 제3차 로잔대회에 관한 제1회 IVF 복음주의연구소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04년 로잔파타야 포럼부터 2011년 6월까지 동아시아 총무로서 제3차 케이프타운 로잔대회 국제위원으로 섬겼다.

2) John Stott, *For the Lord We Love: Your Study Guide to the Lausanne Covenant*,

로잔언약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광범위한 신학적/교리적 전제들을 재확인하고, 그러한 전제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다루었다. 1989년 제2차 마닐라 로잔대회는 “마닐라 선언문(Manila Manifesto):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세계교회에 제시했다. “선언”이란 신념과 의도와 동기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³⁾ 마닐라 선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두 개의 대회 주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마닐라 선언문 1부는 21개 항목의 신앙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부는 3개 부분(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의 순서), 12개 주제들을 설명했다.

제1차 로잔대회(스위스 로잔)와 제2차 로잔대회(필리핀 마닐라)에 이어 2010년 10월 16-25일까지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과 공동으로 아프리카 대륙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3차 로잔대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고후 5:19)라는 주제로 42,000여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복음화라는 남겨진 과업에 대해 숙고하며 친교하고 기도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로잔운동은 로잔언약과 마닐라 선언문에 기초하여 복음의 진정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확인하고 남겨진 복음화의 과업을 위해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케이프타운 대회를 통하여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얻는 기회였다. 케이프타운 대회의 특징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The Didasko File, (London: Lausanne Movement, 2009), 9.

3) “마닐라 선언문, 서문,” 조종남 편저, 『세계 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IVP, 1990), 69.

은 세상에 전파하자”는 로잔의 슬로건을 중심으로 로잔의 정신과 신학을 재확인하고 급속하게 변화해 나가는 글로벌 실재들과 다원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포스트모던 상황들이 초래하는 위기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의 핵심 진리들에 근거하여 전략적 응답을 해 나가려는 시도였다.

이번 로잔대회의 결과는 2부로 구성된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을 통해 요약된다. 1부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서약”이며, 2부는 6개의 주제들로 구성된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 행동을 위한 요청”이다. 특히 2부는 온전한 복음, 온 세상, 온 교회라는 로잔의 슬로건을 기초로 대회 기간 중 토의된 주요 의제들과 참가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집약하여 구성되었다. 로잔운동은 로잔언약이라는 성경적, 신학적 기반 위에 변화하는 세상에서 선교의 전략적 접근을 수용한 마닐라 선언이 그 연속성을 이어갔다면, 이번 대회가 내놓은 헌신의 서약은 불변하는 복음과 문화 사이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내며, 세상 문화 속에서 다양한 종교, 사회, 문화의 도전에 담대하게 대항하고 변혁하며, 복음의 진정성을 말씀과 행위로 드러낼 것인가를 제시한다.

본 소고에서는 케이프타운 서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케이프타운 서약과 로잔언약, 그리고 마닐라 선언문과의 연속성과 차이점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본 소고는 케이프타운 서약에 대한 평가를 통해 로잔운동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고찰한다.

II. 케이프타운 서약의 특징(분석 및 평가)⁴⁾

1. 케이프타운 서약의 구성 및 배경

먼저 케이프타운 서약의 “서문”(forward)과 “전문”(preamble)에 서 로잔 의장인 덕 버드설(Doug Birdsall)과 국제총무인 린지 브라운(Lindsay Brown)은 이 서약이 “로잔언약과 마닐라 선언문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역사적 노선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⁵⁾ 서약의 1부는 신학위원장과 문서작성 위원장인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를 중심으로 18명의 신학자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케이프타운 대회 마지막 날 아침 서약의 1부 전문을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1부에 대한 참가자들과 전 세계 교회의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혹자의 평가는 로잔언약과 마닐라 선언문에 비하여 분량이 많으며, 특별한 신학적 독특성과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혹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너무 소박한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2부의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부에 대한 평가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1부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2부는 대회 직후 참가자들의 목소리와 논의된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4) 케이프타운 서약의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내용 안에 명기했음. 케이프타운 서약은 로잔위원회(LCWE)의 출판담당부서인 런던의 디다스코 파일(Didasko Files)에서 출판한 자료를 사용함. *The Lausanne Movement, The Cape Town Commitment: A Confession of Faith and a Call to Action, The Didasko File* (London: Lausanne Movement, 2010). 이 문서는 2013년 6월경에 한국 IVP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5) Ibid., 3-6.

수용하여 11월 말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모든 견해들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기에, 1월 말에 이르러서야 발표하게 되었다.

필자는 2004년 파타야 로잔모임 이래 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와 신학위원으로서 로잔 3차대회의 준비모임에 참여해 왔다. 로잔 신학위원회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신학위원회와 함께 케냐(2007), 태국(2008), 파나마시티(2009), 그리고 베이루트(2010)에서 4차례 신학위원회 포럼을 통해 로잔의 슬로건인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에 대해 신학적 논의의 결과물을 제시했다.⁶⁾ 이 결과물은 로잔위원회에 제시되어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고, 케이프타운 대회 프로그램 위원회는 이에 기초하여 대회 주제와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서약의 서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대회가 열리기 3년 전부터 12개 지역(로잔의 조직구조)을 중심으로 세계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선교적/신학적 이슈들이 제기되었고, 이 이슈들은 6개의 주제들로 확정되었으며, 대회 기간 중 6회에 걸쳐 주 강사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서약의 2부는 복음, 세상, 교회와 연관된 6개의 주제들과 33개의 항목들(세부 이슈들)로 구성된다. **첫째, 복음과 관련하여 진리와 화해를 다루었다.** 1) 진리와 연관된 7개 이슈들(진리와 인격, 다원주의, 일터, 글로벌 미디어, 선교관련 예술, 테크놀로지, 공적영역); 2)

6)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에 관한 로잔 신학위원회의 입장과 크리스 라이트의 설명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로잔 신학위원회,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에 관한 미간행 자료,” 2007-2010년.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s People: A Biblical Theology of the Church's Miss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0), 23-32.

화해와 연관된 5개 이슈들(그리스도의 평화, 종족갈등과 평화,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과 평화, 장애인들과 평화, 피조물과의 평화. **둘째, 세상과 관련하여 세계종교와 우선순위를 다루었다.** 1) 세계종교와 연관된 6개 이슈들(타 종교인에 대한 사랑, 고난과 죽음, 사랑의 행동을 통한 복음의 표현, 제자도, 사랑의 파급성, 종교의 자유); 2) 우선순위와 연관된 6개 이슈들(미전도 종족, 구전문화, 리더십, 도시화, 어린이, 기도). **셋째, 교회와 관련하여 온전함과 동반자협력을 다루었다.** 1) 온전함과 연관된 5개 이슈들(새 인류, 성적 우상숭배와 사랑, 권력과 겸손, 성공과 온전함, 탐욕과 단순성); 2) 동반자협력과 연관된 4개 이슈들(교회연합, 선교의 동반자협력, 남녀의 동반자협력, 신학교육과 선교). 이 주제들과 연관되거나 다른 이슈들은 대회 기간 오후에 24개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소그룹 발표 및 토론형식으로 진행된 멀티플렉스(multiplex session)와 대담(dialogue session)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2부의 구성은 로잔의 슬로건인 복음, 세상, 교회를 확대하여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한 참회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화해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결단과 헌신에의 서약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고후 5:19)라는 케이프타운 대회 주제는 복음주의 진영에는 생소한 느낌을 준다. 1974년 로잔대회 이래로 복음주의 진영은 교회의 사회적 관심을 중요한 선교의 의제로 표명해 왔지만, 그 강조점과 우선순위(비록 논쟁은 있었지만)는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에 있었다. 케이프타운 대회가 주제로 설정한 “화해”라는 용어는 주로 에큐메니칼 진영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점유해온 신학적 의제였다. 복음주의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개인구원과 복음전도, 즉 구속신

학적인 것이었고 종교,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창조신학적인 주제들은 논의의 중심에 벗어나 있었다. 제1차 로잔대회 이후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신학은 상황화 신학, 하나님의 선교, 종교간 대화, 환경문제 등 에큐메니칼 신학에서 다루어 온 주제들을 복음주의의 신학적 근간 위에서 다루려고 시도해 왔다. 즉 긍정적인 의미에서 로잔운동이 복음주의 선교운동에 기여한 점은,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신학화시킨 개념들을 성경에 근거한 선교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도입하고 전개하여 복음주의 선교학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케이프타운 서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성경 내러티브를 통해 강조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로잔운동이 에큐메니칼 진영과의 신학적 가교를 놓고 대화의 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⁷⁾

가톨릭 신학에서 화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화해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둔다.⁸⁾ 따라서 케이프타운 서약 1부와 2부의 흐름은 창조의 회복과 화해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전개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크리스 라이트의 통전적인 신학 성향(구약성서신학[특히 구약윤리]과 선교신학의 통합)을 반영한 케이프타운 서약은 단순한 교리적 접근이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야기라는 거대 서사적 접근에서 나온 선교적 해석학을 전제하고 있으며, 신학적 통전성과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7) 케이프타운 대회 개회식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올라프 트베이트(Olav F. Tveit) 총무는 축사에서 “제네바와 로잔의 거리는 멀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8) Robert J. Schreiter,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88), 14.

평가된다.

여기서 케이프타운 대회와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케이프타운 서약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회 프로그램은 로잔 신학위원회의 신학적 논의의 결과와 함께 로잔운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열렸던 6번의 회의(홍콩, 말레이시아, 부다페스트,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 케이프타운)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었다. 특이한 점은, 마닐라 선언문에 나타난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이라는 순서와는 달리, 이번 대회의 가로 세로 격자를 구성한 3가지 요소들의 배열은 온전한 복음, 온 세상, 온 교회이다. 즉, **교회와 세상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 순서 배열은 대회의 주제인 “화해”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음과 교회와 세상(문화), 이 세 요소들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영향을 받은 ‘복음과 우리문화 네트워크’(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의 선교해석학적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⁹⁾ 이 모델은 복음과 문화(세상) 사이에 있는 교회의 위치를 규정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 받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다룬다. 즉 교회는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복음에 충실하고 문화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면에서 케이프타운 대회에 나타난 복음, 세상, 교회의 순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축소주의적 견해를 주장했던 호켄다이크의 하나님, 세상, 교회라는 패러다임과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이 순서를 택한 것은 복음과 문화 간의 “도전적 상관성”(challenging

9) 최형근,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신학과 선교』 Vol. 21 (부천: 서울 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참조.

relevance)을 더욱 강조하는 인상을 준다. 전통적으로 복음주의 선교학이 복음과 교회 간의 관계에 더욱 초점을 두었던 데 반하여, 이번 대회의 주제인 “화해”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 관계성 가운데 교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1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와 2부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강권함을 받은 온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해석학적 순환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¹⁰⁾

2. 케이프타운 서약 1부(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서약)

로잔언약은 주로 신학적인 명제들을 중심으로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주제들을 제시하므로 복음주의 진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거를 마련했다. 특히 하나님의 목적, 성경의 권위와 능력,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복음전도에 대한 통전적 접근은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로잔언약은 신학이 선교적 상황에서 구축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했다. 즉 신학은 성경에 근거한 선교적 해석학과 그 적용이라는 주장이 로잔운동의 출발점에서부터 줄곧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로잔언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전도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과 복음전도와 문화와의 관계에 잘 나타나 있다.¹¹⁾

10) 최형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통전적 고찰,” 「선교신학」 제10집 한국선교신학회 편, 2005년, 참조

케이프타운 서약 1부는 로잔언약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지만, 로잔언약과 구별되는 점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서약의 전문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성경적 원리로서 불변하는 실재인 복음과 선교현장인 변화하는 실재”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사랑의 언어로 구성된 서약은 삼중적 사랑, 즉 온전한 복음에 대한 사랑, 온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세상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다.¹²⁾ 크리스채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의 편집장인 데이비드 네프(David Neff)는 서약의 1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 서약문은 각 조항에 대해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지를 점검해 볼 것을 요청한다. 이는 재확인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신경이나 고백을 읽고 암송할 때처럼 믿음의 조상들과 결합되는 순간이다. … 지적 동의는 신앙과 혼동하기 쉽다. 하지만 사랑의 언어로 표현된 이 서약은 우리의 열정과 헌신의 정도를 평가해 보도록 촉구한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우리가 최근 복음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이웃 사랑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질문하게 한다.¹³⁾

네프는 케이프타운 서약이 1974년 이후 복음주의 신학의 발전양상

11) Lausanne Occasional Paper 21,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An Evangelical Commitment,” www.lausanne.org/all-documents/lop-21.html 참조

12) 케이프타운 서약, 전문.

13) 데이비드 네프, “사랑의 언어: 새로운 로잔언약은 우리 자신을 평가해보려고 촉구한다.” 『크리스채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 한국판 2010년 12월 호

을 보여주며, “로잔언약을 뛰어 넘었다”고 평가하며, 그 특성은 선교적이며, 서사적(*grand narrative*)이고, 초대교회의 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⁴⁾ 이 서약의 특징은 선교적, 서사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신앙에 근거한 제자도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의 양태를 담아내고 있다. 즉 케이프타운 서약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교를 신앙의 명제적 진술과 성경의 거대서사(*grand narrative*)로 통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이트는 존 스토틀(*John Stott*)의 뒤를 이어 랭햄 파트너십(*Langham Partnership*)과 존 스토틀 미니스트리(*John Stott Ministry*)를 맡은 구약성서 신학자로서 신학(특히 성서신학)과 선교현장의 가교를 놓는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 필자의 견해로는, 실제로 케이프타운 서약의 전반적인 기조와 특징적 내용은 라이트의 성경적 선교신학에서 나왔으며, 역으로 라이트가 최근 저술한 2개의 저서들인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¹⁵⁾는 로잔신학의 영향(특히 존 스토틀)을 받았다. 다시 말하자면, 로잔신학과 크리스 라이트의 성경적 선교신학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의 신학적 성향은 기독교 신앙의 명제적 진리(*propositional truth*)에 담겨진 서사적 본질을 끌어내는 것으로서, 케이프타운 서약은 성경에 나타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서사적으로 풀어내어 선교적 의제들로 정립하고 현장에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평가된다.

14) Ibid.

15)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열다』, 정옥배, 한화룡 역 (서울: IVP, 2010);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s People: A Biblical Theology of the Church's Miss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0) 참조.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와 구속을 아우르는 성경의 주제이며, 특히 요한 서신의 핵심주제이다. 특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요 20:19-23)는 요한복음의 위임령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1974년 제1차 로잔대회 당시 존 스토틀의 성경강해를 통해 제시되었다.¹⁶⁾ 서약의 제1부 1장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는 서언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나온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이웃과 피조세계로 그 지평이 확장된다. 지상대위임령(great commission)은 위대한 명령(great commandment)에서 흘러나온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은(being called)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데(being sent), 부름과 보냄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형성되고 재형성”되어(being formed and reformed) 나간다. 세상으로 보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청지기 직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섬김과 복종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케이프타운 서약 2부 5장에 나오는 겸손, 온전함, 단순함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 새롭게 헌신을 다짐한다”는 고백으로 귀결된다.¹⁷⁾

16)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주로 칼 바르트(Karl Barth)와 레슬리 뉴비긴, 조지 휘체덤, 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신학에서 살펴볼 수 있다.

2장부터 5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서약을 담고 있다. 2장과 3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데, 특히 2장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주권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심판자, 구세주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2장에서 묘사된 선교의 최상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열망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선교는 삼위일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으로 입증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복음서의 도전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행위 가운데 드러낼(demonstrate) 수 있다. 4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는 2장과 3장에서도 기독교적인 강조점(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열망”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 등)를 염두에 두고 기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¹⁷⁾ 3장은 로잔운동이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17) 케이프타운 서약 2부 5장 참조 여기에는 성적 순결함, 겸손함, 온전함, 단순한 삶의 방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일상적인 행위에 대한 성경적 은유가 언급된다.

18)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하여 기독교(예수의 인격과 사역, 죽음과 부활)은 선교학(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목적)을 결정하며, 선교학은 교회론(교회의 본질과 사역과 기능/형태)을 결정한다.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ReJesus: A Wild Messiah for a Missional Church*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2009), 42-44 참조

확증으로서 복음의 케리그마(kerygma)를 분명하게 재확인한다. 또한 서약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제자도를 실천함으로써 그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낼 것을 촉구한다. 3장은 교회가 종교 다원주의의 도전에 직면하여 복음의 담대함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5장은 성령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서, 성령을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는 선교적 아버지와 아들의 선교적 영”으로 정의한다. 5장은 신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통전적으로 언급한다. 즉, 성령에 의해 창조되고 인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의 예언자적 차원과 복음 선포적 차원, 그리고 은사적인 차원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6장부터 9장의 내용이 케이프타운 프로그램의 세 축인 복음, 세상, 교회로 구성된다고 본다. 그리고 10장은 복음과 세상과 교회를 통합하는 주제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헌신을 촉구하는 것으로 1부를 맺는다.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다. 로잔언약에서 명제적으로 기술된 “성경의 권위와 능력”이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행위로서 성경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케이프타운 서약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역사로부터 분리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담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를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복음주의 신학이 성서신학과 선교학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상이 제기하는 의제들을 풀어나가는 세계관적 근거들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성경에 나타난 신학적인 명제들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역사 속에 나타나는

계시의 본질을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 읽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서사적 본질에 대한 확인으로서, 케이프타운 서약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그들의 기억과 소망을 형성하고 복음증거의 내용과 삶의 방식을 지배한다. 오늘날 상대주의적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하는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고 전파하며 삶에 적용하는 과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절대적 요소이다. 8장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다. 6장이 성경의 계시적인 요소를 언급한다면, 8장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이 초래하는 변혁적인 능력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8장에서 복음은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초래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소식으로서 화해의 복음임을 확증한다. 복음이 초래하는 변혁적인 능력은 믿음과 순종의 행위로서 나타난다. 복음으로 인한 화해와 평화는 서약 제2부 2장(분열되고 파괴된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이루기)에 자세하게 언급된다.

7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7장은 1부에서 가장 긴 장으로서 5가지 사랑의 대상에 대해 언급한다. 이 부분은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청지기직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시편 24편의 고백은 선교위임과 문화위임(cultural mandate)을 연결하는 구절로서 복음과 세상에 대한 “도전적 상관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문화와 피조세계의 고통과 신음을 인식하고 이 땅을 포함하여 전 창조영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문화와 연관하여, 7장이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우리는 모든 문화에 내포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긍정적 증거” 뿐 아니라 “죄의 표지들”을 구별하는 비판적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인종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폭력,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해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대항문화적”(counter-cultural) 태도를 취해야 한다(요일 2:15-17). 이 장에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가난한 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자비와 긍휼의 행위와 더불어서 정의를 행해야 함과 더불어, 사회적 불의에 도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차원이라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점은 크리스 라이트가 “온 땅은 하나님의 선교지이며 우리의 선교지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상통한다.²⁰⁾

9장은 교회에 관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9장의 내용은 2부 5-6장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 장은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모든 분열의 장벽들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할 당위성을 언급한다. 그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13장과 17장에 나오는 사랑의 계명과 하나 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흘러나온다면,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인 교회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뉴비긴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라고 선교와 교회연합의 불가분한 관계를 표현했다.²¹⁾ 만일 교회의 선교가 분열을 조장한다면,

19) 마닐라 선언문 5장에서 영적 전쟁과 능력 대결이 복음전도와 회심과의 연관성에서 기술된 반면,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사회적 불의와 억압이라는 차원으로 확장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0)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열다』, 507.

21) Lesslie Newbigin, *The Reunion of the Church* (London: SCM Press, 1948), 18.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 참된 선교적 교회는 복음증거 뿐 아니라 열방들 가운데 화해를 통한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교회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서약의 특징적 주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가시적 실재로서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며 화해를 이룬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예언자적 정직성을 보여주며 억압받고 박해를 당하는 자들의 삶에 동참해야 한다.

10장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케이프타운 서약이 하나님의 선교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 간의 신학적 가교를 놓은 중요한 요소이다. 10장 서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를 계시한다는 주장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종말론적 차원(새 창조, 계 3:17-20)을 명시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서약의 내용들 가운데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역사 안에서 변혁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창조 전반을 다루며, 그 중심으로서 십자가의 구속적인 승리에 근거한다.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우리가 공유하는 선교를 함께 하는 백성들이다.²²⁾

22) 케이프타운 서약, 1부 10장.

10장은 로잔언약에 나오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의 “우선순위” 논쟁을 불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한 성경적 계시로서 복음에 나타난 “복음전도와 세상에의 참여가 통합된 형태”라고 주장한다.²³⁾ 또한 교회가 순종의 제자도와 긍휼과 돌봄, 정의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보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능력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10장의 내용은 복음과 세상과 교회의 삼중적 관계를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3. 케이프타운 서약 2부(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 행동을 위한 요청)

먼저 케이프타운 서약 2부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사랑과 순종을 하나로 묶는다”는 주장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서약 2부는 1부의 고백과 헌신의 구조를 확장하여 복음과 세상과 교회와 연관된 선교적 의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2부에서 다루어진 6개의 주제들은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과 미래의 우선순위들을 분별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부는 케이프타운 대회 프로그램의 틀인 복음(진리와 화해), 세상(세계종교와 우선순위), 교회(온전함과 동반자협력)를 중심으로 각각 2개의 주제들을 배열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각 주제별로 4-7개의 이슈들(총 33개)을 다루고

23)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열다』, 361-364, 398 참조

있다. 각 장은 주어진 주제들을 중심으로 복음과 세상과 교회를 통전적으로 다루고 있다.

A. 온전한 복음

1) 다원적이고 세계화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폄자.

1장은 7가지 복음의 진리와 연관된 7가지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그리스도의 진리와 인격, 다원주의, 일터, 글로벌 미디어, 선교관련 예술, 테크놀로지, 공적영역).

첫째, 복음의 핵심인 진리로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확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진리는 명제적이고 인격적이며, 상황적이고 보편적이며, 현재적이고 궁극적임을 주장한다. 진리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를 선포하는 행위와 말씀의 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로잔신학의 통전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오늘날 교회는 다원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의 확산 가운데 문화적 다원주의는 현실적으로 인정하나, 절대적/보편적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상대주의적 다원주의의 도전에 직면한 교회는 공공 영역에서 복음을 변증할 선교자원을 구비해야 한다. 로잔운동의 이러한 주장은 복음주의 신학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인 기독교 신앙의 사사화(privatization of Christian faith)를 극복하려는 참신한 시도라고 평가된다. 즉 우리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변증이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공적 영역에서 예언자적인 모습을 띠며 담대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셋째, 로잔의 성숙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전반에

걸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세속적 일터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임을 확증한다. 성숙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선교로 동원하는 데 있어서 주요 장애물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종교개혁이 낳은 만인제사장직에 대한 교회론적 이해의 폭을 넓게 수용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제자도의 개념을 재확인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상이 사역의 장이고 선교의 장이며, 목회자와 평신도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구분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장이다.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로잔포럼에서 강조된 비즈니스 선교(BAM)와 텐트메이킹(Tentmaking) 사역, 직장사역 등은 일상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로잔운동의 전략적 특성들이다.

넷째, 진리를 전하는 수단으로서 글로벌 미디어와 예술,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며, 이 분야들의 기독교적 역할모델들을 발굴해야 한다.²⁵⁾ 이 분야는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예술 분야(음악, 미술, 춤, 이야기, 시각 이미지, 인터넷 등) 테크놀로지와 함께 효과적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로잔이 케이프타운 서약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정통교리(orthodoxy)와 정통실천(orthopraxy)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정통감정(orthopathy)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적으로

24)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과 일에 관해서는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s People: A Biblical Theology of the Church's Mission*, 222-243 참조

25)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예술에 관해서는 로잔 LOP 48과 46을 참조. David Claydon ed., *A New Vision, A New Heart, A Renewed Call: Lausanne Occasional Papers from the 2004 Forum for LCWE, Vol II.*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5).

이 분야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소홀히 했던 분야이며, 오히려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분야였다. 이러한 분야들의 개발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성을 발견하고 선교의 상황화를 발전시키고 전략적 도구들로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공적 분야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시민사회운동, 공공정책 결정, 비즈니스 분야, 그리고 대학을 비롯한 학문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연관된 인적 자원을 구비해야 한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 케이프타운 대회는 비즈니스, 정치, 학문 분야(BGA, Business, Government and Academia)의 종사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대회 기간에 포럼을 열었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로잔운동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이해를 수용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2) 분열되고 깨어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자.

2장은 케이프타운 대회의 주제인 “화해”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와 화해의 복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는 화해와 일치/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지배적인 의제였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즘**(evangelical ecumenism)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와 화해에 대한 전통적인 복음주의의 이해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었고 교회 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케이프타운 서약은 평화와 화해의 개념을 세상으로 확대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 교회의 회개와 갱신을 요청한다. 이것은 복음주의 진영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서로간의 화해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의추구의 근거와 동기이다. 그러한 화해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화해는 죄의 회개, 고백, 용서, 그리고 정의확립과 보상을 포함한다”는 주장은 대회의 소그룹 발표와 토론(multiplex session) 가운데 화해에 관한 모임에서 분명하게 논의되었다. 이 소모임에서 발표된 화해에 관한 사례들로는 르완다 대학살(후투족과 투시족), 남아공 분리정책, 팔레스타인 분쟁, 코소보 인종청소 등이 있다.²⁶⁾ 2장에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복음증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종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과 억압에 대해 침묵을 지켰거나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와 복음주의 신학이 이러한 종족갈등과 억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여 동조한 것에 대해 참회의 고백을 하고 있다. 복음은 불의로 만연한 세계관에 도전을 제기하고 변혁적 상황에 깊이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제자도 없는 복음전도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급진적 순종 없는 부흥의 위험성을 명시한다. 교회는 복음의 화해하는 능력을 온전하게 품으므로 화해라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2장에서 다루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의 복음과 연관된 이슈는 빈곤과 다양한 억압,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과 행동에의 요청에 관한 것이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연대성과 공의로운 행동을 요청받는다. 이 부분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정치적 행동을

26) 화해 관련 논의는 2004년 파타야 로잔포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Reconciliation as the Mission of God”라는 제목의 로잔 LOP 51번으로 출판되었다. David Claydon ed., *A New Vision, A New Heart, A Renewed Call: Lausanne Occasional Papers from the 2004 Forum for LCWE*, Vol II.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5).

촉구한다. 이를 위해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회가 소비주의라는
 맘몬과 부와 탐욕에 포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회개와 이러한 세속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교회는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 이동노동
 과 학대, 성차별의 철폐를 통해 대조사회(contrast society)를 형성해야
 한다. 2장의 마지막 이슈는 피조물과의 화해를 통한 평화이다. 이
 이슈는 창조의 청지기직에 관한 것으로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환경/
 생태학적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생태계의 위기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빈곤과 억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교회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공 분야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지금까지 복음주의 진영의
 목소리는 매우 미약했다. 그러나 케이프타운 대회 이후, 복음주의 진영이
 주도할 세상과 연관된 의제들에 대한 논의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즉 케이프타운 서약의 내용은 화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에 초점을 두고 개인구원과 복음전도, 교회개혁
 에 매진했던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이해가 보다 통전적이고 포괄적인
 선교이해로 그 폭을 더욱 넓혔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확장된 폭에
 대해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너무 지나친 확장으로 인해 선교와 교회의
 본질이 희석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견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케이프타운 서약 서문에서 언급하듯이, 서약의 중심에는 기독교
 신앙의 불변하는 실재들에 대한 확고한 주장들을 재확인하며, “한계범
 위 내에서의 폭”이라는 로잔의 원리를 확인한다.²⁷⁾

27) 케이프타운 서약, 서문.

B. 온 세상

3) 타종교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자.

3장은 다원화된 종교문화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언급한다. 온 세상 가운데 타종교문화와 연관된 이슈들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다. 즉 종교다원주의와 연관된 종교간 대화와 개종의 문제, 박해와 순교의 문제, 내부자 운동(inside movement) 등의 이슈들이 제기된다. 우리는 타 종교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사랑의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타 종교인들에 대한 복음전도의 방법은 강제적인 개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정직하고 개방적인 논쟁과 진술과 대화이다. 타 종교인들과 복음을 나누는 형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윤리적이고 온유함과 정직함, 존경과 칭찬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 크리스 라이트가 말하듯이, “성경적 윤리 없이는 성경적 선교도 없다.”²⁸⁾

타종교가 지배하는 복음에 적대적인 현장에서 고통과 박해와 순교는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복음주의 선교의 중요한 지표로 재차 확인된다. 중요한 점은, 교회가 안락함과 번영에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헌신적으로 응답하며 값진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타종교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은 복음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3장에서는 내부자 운동을 언급하며 혼합주의에 대한 소박한 견해

28)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삶에서 라이트는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즉 그들의 삶은 타종교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존귀하게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열다』, 450.

를 벗어나 각 지역의 신앙의 표현방식을 존중하고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고 종교 문화적으로 민감한 방식을 추구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방식은 상황화에 대한 로잔의 이해를 담고 있다. 오늘날 타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주민들을 지칭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는 선교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디아스포라 선교 이슈는 케이프타운 대회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제기되었고, 로잔운동 뿐 아니라 여러 복음주의 진영의 포럼들을 통해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선교를 위해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교전략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영어 논문을 편집 출판하여 케이프타운 대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²⁹⁾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타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한다. 특히 북한과 같은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옹호는 선교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4)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자.

4장에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우선순위로써 미전도 종족과 소외된 종족에 대한 선교전략, 구전문화권에 대한 선교전략, 리더십, 도시화, 위험에 처한 어린이, 그리고 기도에 대한 헌신인 5가지 이슈들이 제기되

29) Sung Hun Kim ed., *Korean Diaspora and Christian Mission* (서울: 한디포, 2010).

었다. 이러한 이슈들은 로잔운동에서 다루어온 이슈들이다. 특히 미전도 종족 개념은 1974년 로잔언약을 거쳐 1989년 마닐라 선언문에도 언급되며 AD2000 운동을 태동시킨 요인이 되었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과 긴박성의 결핍에 대해 회개를 요청한다. 특이한 점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선교에서 소외된 종족들을 따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성경번역에 대한 강조와 구두적 메시지 전달방법,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양성 등과 같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제시된다. 구전문화권에 대한 선교전략으로서 성경 이야기를 구전형태나 시각적으로 전하는 스토리텔링, 춤, 예술, 시, 연극과 같은 방법들이 선교훈련이나 신학교 커리큘럼에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로 미디어와 테크놀로지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서 성경번역과 더불어 지저스 필름(Jesus Film)과 같은 시청각 자료의 개발은 시급한 선교 전략적 과제이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급속한 교회성장의 문제점을 리더십 훈련의 부재와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리더십 훈련과 관련하여 상존하는 두 가지 문제점들은, 제자훈련의 부족에 기인하며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지도자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과 인격과 성품에 중점을 둔 리더십 훈련의 결핍이다. 이러한 면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은 세속적인 리더십에 근거한 교회성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서약이 제기하는 리더십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점들이 심각한 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비켜갈 수 없는 문제제기임에 틀림없다. 또한 오늘날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은 중대한 선교적 기회를 제공한다. 4장에서 언급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와 미래 선교자원으로서 차세대 젊은 선교인력 동원과 구비, 도시거주 이주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선교, 도시 내에서 문화선교, 빈곤층에

대한 사회선교는 도시화와 연관된 중요한 선교전략들이다. 이 외에 1부에서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학대와 노동을 통한 착취를 고발하고, 선교와 교회의 주역으로서 어린이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구비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헌신의 다짐을 서약한다. 기도는 모든 선교의 요소들을 위한 본질적 근거이며 원천임을 케이프타운 서약은 명시한다. 케이프타운 대회의 준비를 위한 중보기도 위원회의 활동은 대회를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평가된다.

C. 온 교회

5) 그리스도의 교회가 겸손과 온전함과 단순함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자.

5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만 할 길이라는 순례의 은유를 사용하여 5가지 우상숭배를 거부할 것을 단호하게 요청한다. 크리스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복음에 적대적인 타종교나 세속문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숭배라고 주장한다.³⁰⁾ 케이프타운 대회가 열리기 2년 전 영국 옥스퍼드에서 로잔위원회 모임 중 존 스토틀가 국제총무인 린지 브라운(Lindsay Brown)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순결함”이라는 짧은 교훈을 던졌던 것이 기억난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통해, 즉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개혁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 교회가 사로잡혀 있는 우상들에 대해 5장은 성적인 우상숭배, 권력이라

30) 하나님의 선교와 우상숭배에 관해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열다』, 169-236 참조

는 이상숭배, 성공이라는 이상숭배, 그리고 탐욕이라는 이상숭배이다.

첫째,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한 문제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HIV/AIDS, 포르노, 동성연애로 인한 문제점들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성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이혼율과 역기능적인 가정을 양산하고 있으며, 목회자의 타락과 대사회적인 공신력의 추락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귀결된다.

둘째, 권력의 남용 문제는 비단 정치 분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유교문화가 지배하는 한국에서 강한 권력 지향적 성향은 교회를 싸움과 분열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권력의 남용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파괴와 교회 내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고착화시키므로 하나님의 선교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 교회가 권력이라는 이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보여주는 겸손함과 섬김의 자세를 회복하는 데 달려 있다.

셋째, 성공이라는 우상은 교회로 하여금 온전함(청렴함과 순결함)을 포기하는 대가로 성공과 성장을 약속한다. 성공과 성장을 위하여 목회자들은 세속적인 방식들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한다. 즉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며 측정가능하고 결과 지향적인 방법들을 동원함으로써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경쟁적으로 성공을 추구하게 된다.

넷째, 현대 교회 안에 만연한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우상은 교회를 “번영의 복음”(prosperity gospel)이라는 현상을 낳았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소개된 “긍정의 힘”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물질적 축복에 의해 측정되거나 부가 항상 하나님의 징표라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라고 거부해야 한다.”

5장의 내용은 케이프타운 대회 기간 중 크리스 라이트가 행한

오전 전체 모임에서 언급한 것이다. 라이트는 복음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약점에 대해 탄식하며 자성하고 신랄하게 회개를 요청하면서, 겸손과 온전함과 단순한 삶을 회복할 것을 주장했다.³¹⁾ 아이러니컬하게도 케이프타운 대회가 끝나기 하루 전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로버트 슬러 목사가 담임하던 수정교회의 파산소식을 접했다. 또한 케이프타운 대회를 전후하여 한국 개신교 내에 벌어진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교단 내 권력 갈등, 교단장 선거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금품살포와 한기총의 금권선거 폭로전 등은 케이프타운 서약이 촉구하는 교회 갱신과 개혁의 필요성을 한층 절감하게 만들었다. 한국교회가 성적인 우상과 돈과 권력, 성공이라는 우상의 제단을 훼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전함과 단순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6) 선교의 일치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반자협력을 이루어가자.

6장의 서두는 우리가 일치 가운데 살아가고 동반자협력 가운데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초자연적이고 대항문화적 능력을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일치와 동반자협력에 실패하게 될 때, 우리가 전하는 선교적 메시지를 천박하게 만들며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는 주장으로 시작된다. 분열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는

31) 교회의 겸손과 온전함과 단순함에 대한 호소의 목소리가 대회장에 큰 감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프타운 대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다수세계(the Majority World) 참가자들에게는 높은 참가비와 전반적으로 서구의 풍요로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교회는 화해를 통한 일치와 협력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불가시적일 뿐 아니라 가시적이고 실천적이며 실제적인 면에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룰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로잔의 주장은 복음주의 선교의 새로운 시도로 발전될 것이다. 선교의 동반자협력은 단순히 돈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등과 같은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에 근거한 실제적인 전략으로서 상호존경과 상호의존이다. 동반자 협력은 로잔의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온 교회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이라는 선교현장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제는 자민족 중심주의나 간섭주의 우월주의가 지배하던 선교의 옛 패러다임이 종식되었다. 케이프타운 대회는 테이블 그룹을 중심으로 기도와 친교와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선교의 일치와 동반자협력의 장을 마련한 대회라고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대회 참가자들 가운데 여성 비율이 28%였다. 로잔운동은 케이프타운 대회를 통해 역사적으로 여성의 선교적 공헌을 인식하며, 교육, 봉사, 리더십 분야에서 여성의 은사 활용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선교와 신학교육에 대해 케이프타운 서약은 “신학교육은 선교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또한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며, 신학교육을 통한 선교는 교회의 선교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선교와의 연관성에서 신학교육의 목적은 목사-교사들을 구비하며 훈련하고 문화적 상황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비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케이프타운 서약이 신학교육이 본질적으로 선교적임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라는 주장과도 상통한다. 또한 신학교육의 현장성은 신학교육이 단순히 지식습득 중심의 공식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영성과 인격함양을 위한 비형식적이고 현장체험 중심의 비형식적인 교육의

차원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적용되는 상황화된 신학교육 커리큘럼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 중심은 성경연구 이어야 한다.

케이프타운 서약의 결론은 대회 전반에 걸쳐 반복된 두 가지 주제들을 강조한다. 그것은 급진적 제자도(radical discipleship)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성장과 일치로 지향하는 십자가 중심의 화해의 필요성이다. 결론적으로 제자도와 화해는 하나님의 선교의 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복음, 세상, 교회라는 축을 중심으로 1부와 2부의 내용이 상보적으로 연결된다. 크리스 라이트는 케이프타운 서약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걸어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희망한다.

III. 나가는 글: 로잔운동의 비전과 미래

이상에서 필자는 케이프타운 서약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전 세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신앙서약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행동의 결단을 살펴보았다. 로잔신학과 비전은 불변하는 복음에 기초해 있으며, 변화하는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선교적 의제들을 다루어 나가면서 보다 타당한 선교전략을 세우기 위한 논의의 근거를 형성한다. 앞으로 케이프타운 서약은 세계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촉진할 것이며, 교회의 본질을 재고하고 선교적 교회 운동을 촉진시키고,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에도 자극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복음주의 선교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2011년 1월 미국 테네시 주 낙스빌에서 로잔국제위원들이 모여

케이프타운 대회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의 일정과 잠정적 의제들에 관한 논의를 했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제4차 로잔대회 열릴 2020년까지 (예정) 10년 간 로잔운동의 로드맵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케이프타운 서약에 나오는 신학적 의제들과 이슈들은 2020년까지 지역 포럼과 국제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논의의 결과들은 로잔 LOP로 출판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 격년으로 지역포럼과 국제포럼이 계획되어 있다. 올해 2월 초, 로잔운동의 의장이 미국 국적의 덕 버드설 (Doug Birdsall)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마이클 오(Michael Oh, 한국명 오영석)로 바뀌면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6월 17-22일에는 인도 뱅갈로에서 로잔국제포럼이, 2015년에는 차세대 지도자 대회 (Younger Leaders Gathering)가 개최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제4차 로잔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혹자는 케이프타운 대회가 신학적/학문적으로 너무 미약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로잔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운동이다. 이미 로잔은 신학적으로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번 대회도 신학적인 폭을 넓혔다는 증거를 케이프타운 서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신학적인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대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재확인하고 세계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친교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학문적인 탁월성이나 교리적 적실성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 겸손함, 온전함, 그리고 단순한 삶의 방식을 귀하게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청지기과 복음을 위한 제자도를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선교를 파괴하고 교회를 지배문화에 종속시킨다.

이것이 바로 로잔운동이 작금의 한국교회에 던지는 중대한 메시지이다.

한국교회는 올해 10월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를 개최하며 2014년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주관하게 될 양 대회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 두 대회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불편한 기류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바라기는, 작금의 한국교회의 상황과 관련하여 로잔운동의 미래과제는 로잔신학과 로잔의 정신을 한국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파급하는 방안을 찾아내며,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차세대 지도자들을 구비하는 일이다. 즉 한국교회의 리더십 구조 자체가 안고 있는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나 새롭게 부상하는 젊은 지도자들을 세계 선교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케이프타운 대회를 통해서 필자가 느낀 바로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들과 함께 로잔운동과 같은 글로벌 선교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구비되어 있다고 본다. 세계교회 안에서 한국교회의 위상을 재고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구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데이비드 네프 “사랑의 언어: 새로운 로잔언약은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라고 촉구한다.” 「크리스채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 한국판 2010년 12월호.
- 로잔 신학위원회.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에 관한 미간행 자료.” 2007-2010년.
- 조종남 편저. 『세계 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IVP, 1990.
- 최형근.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신학과 선교」 Vol. 21,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 .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통전적 고찰.” 「선교신학」 제10집, 한국선교신학회 편, 2005년.
-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열다』. 정옥배, 한화룡 역. 서울: IVP, 2010.
-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s People: A Biblical Theology of the Church's Miss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0.
- Claydon, David. ed., *A New Vision, A New Heart, A Renewed Call: Lausanne Occasional Papers from the 2004 Forum for LCWE*, Vol II.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5.
- Frost, Michael and Alan Hirsch. *ReJesus: A Wild Messiah for a Missional Church*.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2009.
- Kim, Sung Hun ed., *Korean Diaspora and Christian Mission*. 서울: 한디포, 2010.
- Lausanne Movement. *The Cape Town Commitment: A Confession of Faith and a Call to Action*. The Didasko File (London: Lausanne Movement, 2010. (케이프타운 서약은 6월 경 IVP에서 출간될 예정).
- Lausanne Occasional Paper 21.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An Evangelical Commitment.”

www.lausanne.org/all-documents/lop-21.html.

Newbigin, Lesslie. *The Reunion of the Church*. London: SCM Press, 1948.

Schreiter, Robert J.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88.

Stott, John. *For the Lord We Love: Your Study Guide to the Lausanne Covenant*. The Didasko Files, London: Lausanne Movement, 2009.

Wright, Christopher J. H. *The Mission of God's People: A Biblical Theology of the Church's Miss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0.

■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Capetown Commitment of the Third Lausanne
Congress

Hyung Keun Choi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pe Town Commitment(CT) through the analysis of that commitment with reflecting on its continuities and differences to the Lausanne Covenant and the Manila Manifesto. Also it evaluates the CT commitment and looks forward to the vision and future of the Lausanne movement.

The CT commitment stands in an historic line, building on both The Lausanne Covenant and The Manila Manifesto. The biblical theme of the Cape Town 2010 is “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II Cor. 5:19). The program of the congress i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Lausanne slogan “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One aspect of the program is a change from the order, the gospel, the church and the world to the gospel, the world and the church. This changed order would indicate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spel and the

culture. While the traditional evangelical approach h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spel and the church, the main theme of the congress rather focuses on God's love to the world. But the CT commitment does not lose the significance of the role of the church that binds to God's love for serving the world.

Part I of the CT commitment is based on the Lausanne Covenant. But its distinctiveness is that it is framed in the language of God's love. Its preamble mentioning unchanging gospel in the midst of changing world affirms the three-fold love, our love for the whole gospel, the church, and the world. Part I focuses on the mission of the triune God that flows out of His love. It also deals with the love of the triune God and the *missio Dei* concept. The fact that it clearly mentions *missio Dei* would be evaluated as a crucial factor of bridging the gap between evangelical and ecumenical circle.

Part II begins with the claim that "our covenant with God binds love and obedience together." This insistence clearly means that the mission of God flowing out of His love can be accomplished by obedience of the people of God called and sent into the world by the triune God. Part II widely deals with the missional agendas in relation to the gospel(truth and reconciliation), the world(world religions and priority), and the church(integrity and partnership) with making extension of the structure of confession and commitment. It contains

33 issues relating to frameworks for discernment of challenges and priorities that the church is facing today.

The conclusion of the CT commitment emphasizes two main themes that have been repeated through the congress sessions: (1) radical obedient discipleship leading to maturity, to growth in depth as well as growth in numbers; and (2) radical cross-centered reconciliation, leading to unity, to growth in love as well as growth in faith and hope.

Key words

케이프타운 서약, 로잔운동, 로잔언약, 마닐라 선언문,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

Capetown Committment, Lausanne Movement, Lausanne
Covenant, Manila Manifesto, Whole Gospel, Whole Church,
Whole World

* 논문접수일: 2013. 5. 15. 논문심사일: 2013. 5. 21. 게재확정일: 2013. 6. 5.